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중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HNG HYUN

발행인:김성장 편집인:노광현 편집:이태욱

함께 하는 선교사역 주님의 놀라운 은총

천우교회 성도들, 2004 단기선교사역에 동참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에 단기선교의 사명을 주신 이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에 매진해 왔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열력을 기울였다. 때로는 우리의 단기선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따가운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오직 복음만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직한 순종을 기뻐해 여기서 선교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해마다 더 많은 충현의 성도들이 단기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열심을 부어주셨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이웃 교회들도 우리의 단기선교 사역에 좋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몇 교회에서는 충현교회의 단기선교 사역을 함께 배우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올해는 천우교회 성도 열 분이 우리와 똑같이 CMTC훈련과 언어훈련을 받고, 충현교회의 교구 단기 선교팀에 분산 배치되어 단기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 하였다. 비록 소속 교회는 달랐지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주를 섬기고 있었기에 한 형제자매처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사역비를 전액 부담하고 감사헌금까지 드렸다고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교회와 함께 이 귀한 선교사역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되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저기에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신다. 이웃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사역! 정말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다. 오,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순결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일에 도우소서 사용하옵소서, 아멘!

달고 오묘한 그말씀(5-7월 금요집회)(지오악) - 천국 복음

-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 제2장. 장래에 입할 천국
-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 제4장. 천국의 비밀
- 제5장. 천국의 생령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복음 부분적으로 알 수 있게 됨으로써(고전 15:22-28) 다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세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부활이 있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게 되는데, 이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단계, 즉 육이 멸망당함(마 16:28)을 2012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의 부활이 곧 최후 부활의 시작인 것이다(요 14:19, 빌 3:10, 엡 2:5).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새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사상에 대한 정복처럼 사단에 대한 정복도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먼저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첫 단계이다. 또 사단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무지개에 던져진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사단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불에 던져진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함께 언급되어

9막 10막의 단기선교,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느껴졌다. 생전 처음 해 보는 일이고, 모든 면에서 자신 없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CMTC 훈련과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훈련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 때에 남겨둔 신의 목적과 의의가 전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참 사랑의 실천임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 속에 담담함이 생겼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담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사 1:9)라는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로 향하였다.

그러나 첫째 날 새벽부터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다. 빈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다. '과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하여 망설였었다. 그래도 전도지를 건네고 약속하지 않은 현지 언어로 말을 건네고 전도지도 읽어주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한 듯 전도지도 보고 우리의 전도를 듣던 사람들이 이내 실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다. 그런 상황도 싫었지만 내 자신이 더욱 실망스러웠다. 형식적으로 전도지를 건네주고 전도지를 몇 번 읽 어준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위안을 얻으려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그 날 내 회개를 참 많이 하였다. 예수님께서 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천국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변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셨다. '여호와 이름'이라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셨고 행하셨다.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와서 그저 일일 일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준비해 온 언어와 몸동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순순하게 복음을 받았다. 때로는 영혼을 뿔뿔이 뜯고 싶은 듯도 하였지만, 때로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뒤에 대한 완전한 욕구를 느끼고 복음을 듣고 고백하였다. 생명의 역사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내 짧은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어찌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내 짧은 설명에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친히 이루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우리는 말 그대로 '담담하게' 나아가 어디든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따라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신기하게 되었다.

사역자의 영혼들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주님께 순종하여 모든 일을 주님이 맡아 행해 주셨다. 나는 그저 도구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을 뿐이다. 모든 영감을 하나님께 돌리려 했다. 아울러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충현교회에 감사 드리며 같은 팀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

- 천우교회에서 이희호 성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마가복음 1장 21, 22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한 일이라;"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를 종합해 보건대, 우리 주님의 사역과 천국복음 선포는 병 고치심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한 마디로 주님은 천국복음을 선포로 보여주셨다.

이로써 우리가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단의 사슬에서 풀려주시고 인간 기간과 천국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사단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있지 않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거하시므로써,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시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사단은 그 형을 잃은 것이요 또 결박을 당한 것이다(마 12:29).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70인의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눅 10:9)라고 일러주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까지도 저들에게 항복했다(눅 10:17).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썩게 할 자를 내가 보았노라"(18절)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단의 세력이 그 절정으로부터 떨어졌음을 밝히셨다.

사상에 대한 첫 번째 승리는 이미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이미 사단의 영역, 곧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 대한 이 같은 첫 번째 정복으로 인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동시에 이미 현존하는 것이다.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이 전과 다를 바 없고 사단의 세력도 여전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영성화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천국복음이 이루어진다.

(6월 11일, 6월 18일자 메시오 요약)

COST OF CHRISTIANITY

***“Indeed,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2 Timothy 3:12)***

So many believers, including me, want to live on this earth as Jesus did. However, when we look at the Bible, we do not really want to do what it says, and sadly, many actually do not. Persecution, temptation, or tribulation comes, and people give up. Samuel told Saul that God regretted making him king because of his disobedience (see 1 Sam. 15:11). Christians say that they want to practice their faith and do what the Bible says, but too many end up not doing it. Demas started out with Paul, but deserted him because he loved this present world (see 2 Tim. 4:10). Why is that? What is the real cost of being a Christian?

Christians lose family and friends. Luke 14:26 tells us,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Family and friends should not discard you when you become a Christian, but most do. Their love should be as Proverbs 17:17 says, “A friend loves at all times, and a brother is born for adversity,” but usually is not. The good news is that in losing family and friends, you immediately gain a great friend, Jesus Christ. If you do not think about Christ as your best friend, you will not want to lose your family and friends. Jesus said,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Jn. 15:14). Do you really count Jesus as your best friend? Matthew 10:37 says,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Jesus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He calls you His friend, but instead of making Him your best friend, you enjoy the friendship of others more. Are you willing to pay the cost? On the one hand, you will lose many earthly friendships, but on the other hand, you will gain the best friend ever.

Christians lose influential power and authority. When you live as a Christian, your earthly friends look at you unfavorably because you do not think like them. Their ideas of success are not the same as yours because they love the things of the world, like money, popularity, and style. You could care less about such things. As such, whatever you say or do does not usually mean much to them because they think you are stupid. 1 Jn. 2:15 says,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As a Christian,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is earth. If you love the things of this world, what difference is their between you and an unbeliever? You cannot go the world’s way and God’s way. There is a significant distinction between light and dark. You cannot mix them. There are no shaded colors in Christianity; it is black or white, right or wrong. If you say you are salt or light, and you come back to the world’s way, people will doubt you. You will not be able to save souls because you will have become a hypocrite. Only a good conscience can conduct a person honorably (see Heb. 13:18). If you try to play a double game, you will lose on both sides. Therefore, whenever you look at a friend or acquaintance, you have to look at

them through the word of God,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2 Tim. 4:1-2). Please, do not monkey around. Christianity will cost you to lose your influence on one side, but on the other side, you will gain influence in saving souls.

Christians lose joy. When you throw everything of earthly value down, whatever enjoyments this earthly life offer, like eating, drinking, sleeping, and fellowshiping, you give it all up. Psalm 144:15 says, “How blessed are the people who are so situated; how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Indeed, you will lose earthly enjoyments, but you will gain joy in the Holy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Rom. 14:17). Do you believe it? The world’s joys are temporary, but God’s joys are eternal.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that you will weep and lament, but the world will rejoice; you will be sorrowful, but your sorrow will be turned to joy” (Jn. 16:20). To lose a little earthly joy in order to gain a little heavenly joy is not much of a loss.

Christians lose their lives.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and the gospel’s will save it” (Mk. 8:35). Here is the eternal battle. If you live an earthly life, you will lose eternal life. If you live a godly life, you will gain eternal life. “If your hand causes you to stumble,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than, having your two hands, to go into hell, into the unquenchable fire” (Mk. 9:43). Those who choose the world’s way will go away in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see Mt. 25:46). When Jesus returns, He will be “dealing out retribution to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to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These will pay the penalty of eternal destruction,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power” (2 Thes. 1:8-9).

Christian, you will lose much, but what you gain from your losses will be much better. When you deny yourself, God is on your side, and He will not deny you. He makes it so you become a part of Him. You are in Him and He is in you. You are His. Romans 8:31 says,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Jesus told the Smyrna church,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ev. 2:10). Ten days is a short time of giving up in comparison to the things of eternal life. Are you ready to give up everything? Are you paying the cost of Christianity? Listen Christian; do not play both sides, for you will lose dearly in the end. Suffer now for just a short while longer, and all will be well. Amen. 🙏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김성관 목사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핍박, 시험, 시련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삼상 15:11 참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믿음을 실천하고 싶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데마도 한 때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에 헌신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데마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딤후 4:10 참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잠 17장 17절 말씀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는 순간 여러분은 위대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친구로 여기며 살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정말 지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많은 친구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함께 할 가장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외면과 멸시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과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좋아할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나 명예나 호화로운 생활을 사랑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을 이리저리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대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마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불신자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희색이 없습니다. 겉든지 하든지, 겉든지 겉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길로 돌아가 버린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선적인 삶이 걸림돌이 되어 여러분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만이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히 13:18).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둘 다 걸으려 한다면, 그 둘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 그러므로 매 순간 진지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과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면한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나 달콤한 잠이나 사람들의 재미있는 사귀기처럼 세상이 재공하는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즐거움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참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 16:20). 하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기쁨을 잃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구원되리라”(막 8:35). 여기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끼여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3). 이 세상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것입니다(마 25:46 참조).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다음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빛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살후 1:8-9).

무가치한 것들을 잃고서 영원한 것들을 얻으라

그리스도인들아,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탄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은 잃고 하나님을 얻는다. 여러분은 잃고 하나님을 얻는다. “그러나 내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예수님은 서마리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육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붙어 있으라 내가 내게로 돌아와 너희를 능히 간수하리라”(눅 21:10).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일 동안의 환난은 아무 것도 아니며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습니까?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걸으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안수집사 칼럼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삶



고승균 (안수집사회 부회장)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우리가 너무나 그리고 더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게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편에서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끈질긴 사랑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신선한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늘 들었던 십자가의 복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랑이 되었습니

다.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습니

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가슴 속에서부터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늘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홀라차런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고 순종적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으니 가슴이 미어졌고 뼈아픈 통회의 심정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를 불쌍히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믿기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으로 알게 된 이후부터 우리 종회의 성도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다고, 그것은 교회의 5대 목표를 우리 삶의 목표로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5대 목표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알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에 철저하게 헌신하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가슴으로 깨닫고 확신한 이후부터는 교회의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칼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길 중에서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요? 이러한 질문에 수많은 현인들이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도 실은 이와 같은 인간노력의 산물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올바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자 심오한 철학적 깊이를 가지면서 인간 삶의 난제들에 이르면 죽음 비롯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로의 창조와 그 진행과 종말을 통째로 다 못하는 무능력한 어떠한 종교도 진정 올바른 길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

다(잠 16:25).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역사가 도인미의 말처럼 '인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서,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과학문명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썩은 나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스포츠라는 명목으로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살아가면서 갖는 수많은 죄는 우리를 사망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롬 6:21). 이것이 인간 문제의 수면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었는지요? 그 답을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길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요 3:16). 천하 흉도 없고 정도 없는 그 분이 십자가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생명을 포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신령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인 동시에 귀중한 특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입문 양성'은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많은 인력과 기도가 필요함이나(딤후 4:2 참조), 금방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a)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 현장에 참여할수록 이 일의 가치와 중요성과 보람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현교회가 평신도 단기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해야 하는 필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막 16:15).

'이웃 사랑'은 믿음의 표현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이웃을 향하여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 중 하나에게 배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b)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데도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신지요! 살로, 하나님께서 증현교회에 주신 모든 목표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이 중요한 목표를 위하여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으로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히 4:16).

누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보혈을 흘리기까지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는지, 그분은 인류역사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분이 없습니다(마 14:6).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므로 영생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길을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간 항공기를 동원하여 '알라 신 만세'라고 외치면서 세계여행을 폭발시킨 그 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때림시키는 사탄의 간계한 전략과 잔혹이 풍요로 있을 뿐입니다(요 10: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 탁월함이 인간과 우주를 초월하는 아미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길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로 걸어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한걸음 다가가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렵습니까? 힘들습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십니까?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누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사면이 다 가로 막혀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홍해에 마른 땅을 내시며 그분의 권능한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그 앞길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위에 굳게 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을 찾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골 1:6).

(하심록 목사(18교구 지도)

단기선교에 참가한 타이인 간증

주님의 섬세한 손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 주님의 일꾼이 필요한 나라로 보내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팀을 이루어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외선교를 처음 가게 하시고, 그것도 천우교회 교인으로서 천원교회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부터 주님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제 아내가 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의 수술 일정이 많아서 몇 달 후ंना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어 하는 아내를 보면서 단기선교를 포기할까 여러 번 생각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황을 천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일정이 빠르게 잡혔는데 제가 단기선교를 다녀온 며칠 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내를 맡기고 선교를 다녀왔고, 아내의 수술은 아주 잘 되어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포기했다더라면 아마 큰 후회만 남았을 것입니다.

준비과정에서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말에 의문을 가졌으나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눌한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대로 알아들을까 걱정했으나 의외로 "아멘"을 따라하고 "예"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5-6명의 부녀자, 2-3명의 청년, 7-8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신성한 충격이었는지. 또 다른 마을에서 전도할 때 2-3명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이곳으로 선교 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협조적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주었고 마이르코는 동네에 방송을 해줘 마을 경로당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나의 믿음을 다그치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송수남(집사, 천우교회)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선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데 막상 출발하는 날이 다가와 두렵고 떨렸다. 연세가 많은 권박사들의 건강도 염려되어 비행기 안에서 내내 주님께 회개와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 결과 선교지를 밟은 순간 우리 모두는 세로모든 무한한 힘을 얻은 듯 하였고기에 찬송가 355편을 읽는 데도 지치지 않았다.

우리는 시내의 한 교장 선생님 집을 방문하여 주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성경을 일곱 번이나 통독하였지만 정작 주님을 영접하기는 거부하였다. 잠시 우리들의 대화는 중단되었고 분위기는 싸늘하여졌다. 그 짧은 순간, 한 집사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거부당하고 물러나야 합니까?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원하였다. 주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여 주셨다. 그 집사는 용기를 얻어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교장 선생님, 주님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여 결국 교장 선생님과 그 부인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둘이오기 전날 밤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식당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 선교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통역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리 숙소로 왔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물었는데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그에게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끝마쳤다. 주님께서는 좌우의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셨다. 그 순간, 비가 멈추고 햇살이 나면서 더욱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조금 후 또 하나의 영롱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쌍무지개를 보여주셨다.

"나를 위해 고생한 너희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감사하며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한한연(한수집사, 17교구)

선교지에서 만난 귀한 영혼들

그 어린이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를 앞두고 우리 각인 인간적인 걱정들을 모두 기우로 만드셨습니다. 출발 전에 우리는 경찰의 감시가 더욱 엄격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선교지의 기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 고생할 것이라는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경찰의 방해를 받지 않았으며 날썰고 쾌적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선교지에서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향한 영혼들을 세밀하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을 피하는 눈치였으나 한 어린이에게 전도 책반침을 전하며 천근감을 표시하자 여러 어린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어린이들은 모두 믿겠다고 대답하고 영접기도까지 씩씩하고 모뎡하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준비해간 약품을 나눠주며 '예수 사랑하심' 찬양을 음들과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사역 종료시간이 다되어 자리를 뜨자 그들은 따라오면서 약보다 보지 않고 방금 배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어

린이들이 저희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도 헤어지기 싫었다 봅니다. 버스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순간 어디선가 찬양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바로 그 어린이들이 조금 전에 배운 찬양과 음들을 하며 저희들을 배웅해주고 있었습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요. 꿈에서 본 듯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번 선교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매달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망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깨닫게 됩니다. 이번 선교는 저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감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을 사용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근원이 되어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한천(집사, 6교구)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9일(월)-8월 18일(수)	11교구 3지역	서영석	8월 12일(목)-8월 20일(금)	8교구 5지역	추병창
8월 9일(월)-8월 16일(일)	청년116	한승규	8월 12일(목)-8월 20일(금)	13교구 1지역	임인수
8월 10일(화)-8월 18일(수)	6교구 6지역	김달현	8월 12일(목)-8월 20일(금)	16교구 1지역	김병권
8월 11일(수)-8월 20일(금)	4교구 6지역	박우현	8월 13일(금)-8월 21일(일)	12교구 4지역	정원근
8월 11일(수)-8월 18일(수)	6교구 5지역	박병문	8월 13일(금)-8월 21일(일)	17교구 8지역	한승조
8월 11일(수)-8월 20일(금)	18교구 4지역	전학래			

★ 인쇄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16일(월)-8월 25일(수)	9교구 10지역	박민태	8월 17일(화)-8월 24일(일)	1교구 4지역	김신국
8월 16일(월)-8월 26일(목)	9교구 3지역	홍성식	8월 17일(화)-8월 24일(일)	2교구 7지역	김문섭
8월 17일(화)-8월 25일(수)	대학부40	김양중			

"도한 우리들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골 4:3)

고등부 수련회 한마디



♡ 나를 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하셨으면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내 생애와 고직으로 가득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동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에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주강해주세요. 감사해요.

♡ 둘 돌린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매이랍니다. 아아!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많고, 제가 던진 돌에 맞아서 상처부상이나 되었을 주님을 생각하니까 많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한발씩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라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 마음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며

죄악을 양면으로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세요. 매일 매순간 회개를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하리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리 원합니다.

♡ 사랑,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 가요겠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지금까지 교회도 불성실하게 다니고, 교회에 단지 친구들을 만나러오는 저였어요. 오늘 힘겹게 수련회를 왔는데, 꼭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 가요겠어요. 그런데 저의 이렇게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친구도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 왔는데 전 부끄러워만 해요. 겁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다닌 제 모습들. 이렇게 반성하는 제 모습이 전 주님께 많이 다가간 것이라 믿고 싶어요. 고3이란 핑계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 제 마음에 새겨주세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태초 전부터 저에게 계획하신 일을, 제가 책임감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이 못난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그 통을 받으셨는데, 저는 자구 있어 버렸습니다. 주님 모습을 제 마음 속에 새겨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하도록 해주세요. 주님에게 사랑하신 이들을 어찌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번 제 맘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려주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 완전한 주님의 창당도구

나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이 감사해요. 너무나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구 자신이 너무 커져만 가는 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 마음 중심에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려 노력하는데 주님! 이 맘은 너무 약해서 고통 지쳐 쓰러져요. 붙잡아주세요. 완전한 주님의 창당도구로 성장하게 할게 해주세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자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효녀가 되게요.

♡ 예수님을 통해 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니며 생애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 배우면서 알고 있던 사실을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해하였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잊지 않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실수록 겪게 되는 많은 죄악들과 부딪힐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나와 다른 하나님의 성품

오늘 이전에 모르고 있던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많은 죄악을 저질러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해서도 돌이키시고 처벌하지 않으시며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저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세례를 기대하며

충현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가끔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불교서적이거나, 대순전리교 서적이거나, 기독교서적 등을 살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종교에 몸을 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현교회에 다니는 직장 동료와 친해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다며 배우려 가 보자고 제안해 한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바로 따를 수 없었던 한 지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궁금해는 터라 관심을 갖고 동료들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우면 땀다고 빠지고 만날 사람이 생겼다고 그냥 빠졌습니다. 집과 회회가 멀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계속 듣고 매주 회회를 오다보니까 거기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차츰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일만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게 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고 약속도 예배시간에는 잠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학습을 받을 때 배운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교육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예!'라는 대답이 나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는 믿음을 갖기를 정말 즐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만 전도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일단 힘들기도 하고, 제가 처음 전도 받을 때처럼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잘 납득하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찌지 모르겠지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한국 전통 문화와의 충돌입니다. 친한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기독교식 관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칠 때마다 난감합니다. 이때 전통을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힘든 것은 헌문문제를 따를 때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나 나의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다가 많이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새가족부 신생님들처럼 말씀을 잘 설명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기대되고 빨리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오형근(심도, 새가족부)

심반기 주간성경공부 후기

'이제 남은 것'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온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머리가 아플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족보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 어떤 시대와 어떤 사람에게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어져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족보에는 놀랍게도 이방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여인을 사용하심으로 이미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선교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터져 나왔다.

주님의 죽음을 대가를 내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위해 살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주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하는 회개하게 되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대하면서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죽는 것이다. 내 계획과 생각,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전체가 바로 이 명령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이 명령을 이루셨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양미경(집사, 16교구)

교회탐방 ● 장학생 양성훈련

믿음으로 일하는 천국일꾼

지난 13일 금요일 예배 후 aula에 모여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배디나 울로 물러갔다. 젊은이들이 모여 앉은 배디나 울에서는 또 한번의 예배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배 설교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살전 1:3)라고 말씀을 읽고 천국 일꾼들의 할 일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다.

천국의 일꾼은 일을 하는 목적이 세상의 일꾼과는 다르다. 세상의 일꾼은 자신을 위해 일을 한다. 자신의 수입, 자신의 발전 혹은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 자기가 모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천국의 일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소망을 품고 일을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을 한다. 때문에 세상의 일꾼과 같이 불안하지 않다. 천국일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 세상의 일꾼처럼 '땀아지 않을가?'하는 불안감을 갖지 않는다. 천국의 일꾼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므로 반드시 완성된다. 때문에 천국일꾼은 반드시 이루어질 천국을 향해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다. 천국일꾼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천국일꾼을 길러내는 과정에는 실제로 천국일꾼들의 많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다. 담당 목사는 장학생들이 제출한 신앙 간증과 신앙 눈송이를 모두 읽고 재검하여 다음 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여기에서 선발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신앙과 봉사이다. 그 사람이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한 여섯 명의 장학 위원회 장로님들은 장학생을 뽑을 당시 학생들을 면접, 면담하고 학생들의 신앙과 정신, 천국일꾼으로서의 자격 등을 보고 어려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한다.



장학생을 뽑기 위한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천국일꾼으로 양육하고 관리하는 일도 진행된다. 장학생 양성 훈련과 같은 것들이 그 일들 중의 하나이다. 장학생 양성 훈련은 학기 중 두 번에서 세 번 이루어지

는데 목사님께 천국 일꾼으로서 배워야 할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장로님께 듣는다.

또한, 천국일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과제로서 예배 참석과 선교, 전도 등을 관리한다. 이 일은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오랫동안 후배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일써온 네 명의 선배 장학생이 담당한다. 예배시간 전, 후에 안내실에서 편지를 적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는데, 안내실에서 젊은이들을 관리하는 이들이 선배 장학생들이다. 이들은 장학생들의 예배 참석 관리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에의 권면과 확인, 전화심방 등도 담당한다.

최근 들어와서 장학생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성경읽기이다.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생들에게 성경을 1년에 2독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장학생들이 부담도 갖고 어려웠었는데 장로님들도 동참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은 장학생들에게 1년에 2독은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일들은 장학생이나 장학 위원회 자체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장학생 교육 이외의 행정적 업무도 상당한데, 장학생들과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는 교육국에서 관리한다. 교육국에서는 장학생을 뽑을 당시 신청서 및 여러 가지 제출 서류를 접수 받고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장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학생 자격이나 신청 방법, 날짜 등은 매 시기마다 주간 중현에서 볼 수 있다.



천국일꾼 양성의 일환인 장학생 양성훈련에 참여하고 난 후 문득 '우리가 장학생들만을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은혜와 이유는 갈을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들에게 떠맡겨 버려버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성도는 모두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일을 하는 천국 일꾼들이다. 자신이 성도이고 천국 일꾼으로서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장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듯이 선교와 전도,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천국복음이 아닌가 한다.

종교/전담실

다음 주일 찬송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음 주일 찬송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있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특별히 2절과 4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상해보자.

2절: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고달프고 어두운 인생길을 밝게 하심으로 성실함과 인내로 영혼들을 주께 이끌겠다는 것이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

4절: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까지 주께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평안히 가게 하소서 아멘.

인생 끝날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헌신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 영원한 본향에 평안히 가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찬양합니다.

(찬양위원회)

새·가·목·을·환·영·함·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91	박광재	19	청년2부	장정자(9)	2407	홍경희	2	장년1부	김정배(2)
2392	장병남	19	청년2부	장정자(9)	2408	김경미	10	청년1부	이형순(10)
2393	최현정	19	청년1부	장정자(9)	2409	강현석	19	청년1부	이용현(14)
2394	송찬악	15	청년1부	이수덕(15)	2410	정현식	19	고등부	조성민(19)
2395	오수빈	19	중등3부	김식균(9)	2411	오하늘	19	고등부	정재훈(2)
2396	정경화	5	장년1부	임학선(5)	2412	유성미	3	장년1부	박해옥(9)
2397	박계환	12	청년2부	임학선(5)	2413	수정	19	외신부	배옥순(9)
2398	이경수	15	장년1부	손인순(16)	2414	아동	19	외신부	최만우(9)
2399	김부다아	2	에스디	손인순(16)	2415	문영실	19	청년1부	성기철(1)
2400	이준서	19	대학부	이흥주(15)	2416	이진경	19	청년1부	성기철(1)
2401	이순희	1	장년1부	이인순(1)	2417	이대원	6	장년2부	김정수(6)
2402	이옥자	2	장년2부	이원자(3)	2418	황송훈	19	청년1부	김정수(6)
2403	김진영	11	청년2부	지정록(11)	2419	신철희	19	고등부	황정미(7)
2404	염연아	11	청년2부	지정록(11)	2420	송미혜	15	장년1부	김종영(15)
2405	김경희	16	장년1부	김부수(16)	2421	신민범	19	청년1부	최주영(1)
2406	김수진	19	고등부		2422	김준규	19	청년1부	이태복(1)

※ 총헌회의 한 가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목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전체 월례회
일시: 29일(다음주일) 15:00 장소: 갈릴리움
2. 권사 4지회 월례회
일시: 25일(수) 수요1부예배후 장소: 영아부실
3. 군전도회 월례회
일시: 27일(금) 18:00(식사 17:00, 만나홀)
장소: 베다니홀

별 세

1. 김승복 타고권사 김광 집사의 모친, 박종영 권사의 시모, 4교구 방배6구역/ 2일 별세, 12일 장례
2. 최우성 성도 장가면 성도의 장인, 최태희 권사의 부친, 17교구 장안구역/ 11일 별세, 13일 장례
3. 유태임 타고권사 최병덕 성도의 모친, 최애순 권사의 시모, 17교구 하안구역/ 14일 별세, 17일 장례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설교자/기도자	양재웅/노광원	이재영/이호일	임현덕/윤우선	이종대/표왕열	정현민/양한원	류병희/김정자	안창득/류진희

예배담당 안내 (8/25~8/29)

날짜	예배	예배전향	사 회 기 도	설 교
8/25	수요 I		방준영 이혜자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8/21-23) 이경준 목사
8/25	수요 II		윤수일 김정자	나의 하나님(룻 1:15-18) 김인협 목사
8/27	금요집회	플로 카복희 스프리노 주승진 가브리엘 중창단	이종대	이태복 목사
8/29	주일 I		김준희 임영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딤후 3:12) 윤수일 목사
8/29	주일 II	어느 민족 누구냐와 외임아 열 남생중창단(저도-강만수)	임현덕 이영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딤후 3:12) 장 호 목사
8/29	주일 III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의 사랑의 집회(합창) 오세호	이종철 황승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딤후 3:12) 정병민 목사
8/29	주일 IV	이 세상 험하고 의 스프리노 김준자(이민 권태대 솔로리스트)	이경준 최현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딤후 3:12) 조근호 목사
8/29	주일 V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의 별빛 중창단(저도-강만수)	안치원 정길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딤후 3:12) 정승진 목사
8/29	주일찬양		안광덕 조종현	선택된 나그네(베린 1:1-7) 정진호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료, 외국어 동시통역 제외)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제외)	본 당
	V 오후 3:00 (결혼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친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영아부	오전 9:00 ~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청년 2부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년 1부
유치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청년 3부
유년부	오전 10:50	교육관 307호	성남 2부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성남 1부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성남 3부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신촌초등부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신남초등부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탁아부
고등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세가지문위원회
대학부	토.오. 6:00	제2교육관 4층	총원회의실
청년 1부	중.토. 12:00	제2교육관 4층	정산장제2교육관
			국회위원회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	오후 11:00	금요일 오후 본당 앞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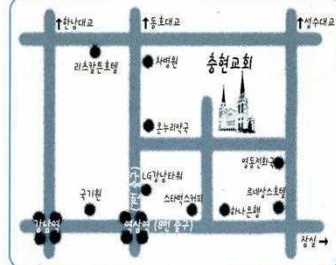
시 간	장 소
오후12:10	교육관 501호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오후12:15	갈릴리움
오후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11:00	북지관 지하1층
오후10:00~100(설)	교육관207호
오후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오후15:15 오후12:15	갈릴리움, 벤티니움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주간교육	충원 북지관
월 11:00	이 멘 룸

본어 및 수화로,
영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8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독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예배 때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드러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③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힘을 간구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온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⑤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⑥ 십자가 앞에 열드리는 거듭난 천국일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부록사				
이종대	정현민	백인기	여성기	류병희
14.2	14.2	14.2	14.2	14.2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한광덕
14.2	14.2	14.2	14.2	14.2
방운영	나광영	정호조	김용덕	고광훈
14.2	14.2	14.2	14.2	14.2
위건만	김기환	김정수	장 훈	임원덕
14.2	14.2	14.2	14.2	14.2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14.2	14.2	14.2	14.2	14.2
정장신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14.2	14.2	14.2	14.2	14.2
이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오승민
14.2	14.2	14.2	14.2	14.2
■ 남도지사 송효환 (14.2년)				
■ 여도지사				
정현민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14.2	14.2	14.2	14.2	14.2
홍순재	이우주	김갑자	안태준	김정원
14.2	14.2	14.2	14.2	14.2
김주자	강덕필	최문실	전은희	김영순
14.2	14.2	14.2	14.2	14.2
김정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14.2	14.2	14.2	14.2	14.2
■ 찬양감독 강영구		■ 전담지휘자 서문성		
■ 전담지도자 김소연				
■ 해설사 김기호, 최오재				

■ 시무장로

김의철 경주시 공무원	김은호 경주시 공무원	노영권 영주시 영주시민회	오진국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병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엄영섭 경주시 경주시민회	강도홍 경주시 경주시민회	이 훈 영주시 영주시민회	남순우 영주시 영주시민회	정승호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영걸 경주시 경주시민회	문홍구 경주시 경주시민회	조인재 경주시 경주시민회	김종구 영주시 영주시민회	최기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창호 영주시 영주시민회	최진덕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장남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종식 영주시 영주시민회	안홍록 영주시 영주시민회
임무천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갑재 영주시 영주시민회	전홍옥 영주시 영주시민회	전홍철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정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단홍 영주시 영주시민회	황영일 영주시 영주시민회	한승균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영삼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기배 영주시 영주시민회
원용철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형수 영주시 영주시민회	안동원 영주시 영주시민회	황만인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구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최윤덕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계인 영주시 영주시민회	박익광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대식 영주시 영주시민회	정태두 영주시 영주시민회
박용구 영주시 영주시민회	권명옥 영주시 영주시민회	조종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배순식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달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성호 영주시 영주시민회	박진섭 영주시 영주시민회	최치운 영주시 영주시민회	노영만 영주시 영주시민회	박익구 영주시 영주시민회
정경길 영주시 영주시민회	신상수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계수 영주시 영주시민회	강철원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은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이달우 영주시 영주시민회	정철환 영주시 영주시민회	김승곤 영주시 영주시민회	함철주 영주시 영주시민회	윤민기 영주시 영주시민회
정신현 영주시 영주시민회	안석현 영주시 영주시민회			